

##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Phialemonium obovatum* 복막염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여상목, 최 고, 강건우, 박지혜, 황은아, 한승엽, 박성배, 김현철

### Peritonitis Caused by *Phialemonium Obovatum* in Peritoneal Dialysis Patient

Sangmok Yeo, Go Choi, Gunwoo Kang, Jiehae Park  
Eunah Hwang, Seungyeup Han, Sungbae Park, Hyunchul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Kidney Institute

**배 경:** *Phialemonium*은 대기, 토양, 저수조 등에서 발견되는 진균으로 인체 감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면역결핍질환, 장기이식환자, 악성 종양 등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기회감염을 일으킨 증례보고들만이 있을 뿐이다. 몇몇 보고에 의하면 *Phialemonium*의 인체 감염시 ketoconazole, fluconazole 및 itraconazole 등의 약제에 저항성을 보일 뿐 아니라 *Phialemonium*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약 50%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유지투석환자에서 *Phialemonium* 감염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문데, 외국의 경우 혈액투석환자에서 발생한 *Phialemonium* 감염증의 증례보고가 있으며 복막투석환자에서 발생한 예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연자들은 유지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Phialemonium* 복막염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7세 남자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8년전부터 복막투석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내원 1개월 전 *Acromobacter xylosoxidans*에 의한 복막염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내원 3일전 복막투석 도관의 손상이 발생하여 tranfer set를 교환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내원 1일전부터 혼탁한 배액액, 복통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복부 압통이 관찰되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4,830/mm<sup>3</sup>, 혈색소 10.2 g/dL, 혈소판 82,000/mm<sup>3</sup>, 배액액내 백혈구수는 558/mm<sup>3</sup> (중성구 90%) 였다. 입원즉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배액액내 백혈구수가 감소되지 않아 입원 3일째 vancomycin과 carbapenem계 항생제로 교체하였다. 항생제 교체후에도 배액액내 백혈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입원 6일째 복막투석 도관을 제거하고 혈액투석치료로 전환하였다. 제거된 복막투석도관을 이용한 균배양 검사에서 *Phialemonium obovatum*이 검출되어 입원 10일째부터 fluconazole을 정맥주사하였으며, 항진균제 투여 후 발열 및 복통이 호전되었다. Fluconazole 투여 8일째부터 다시 발열 및 복통이 발생하여 amphotericin B 정맥주사로 교체하였다. Amphotericin B의 교체투여 후 발열 및 복통이 소실되어 이후 14일간 amphotericin B 정맥주사치료 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현재 복부 증상없이 유지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Key Words:** 복막염, 진균, 복막투석

Peritonitis, *Phialemonium*, Peritoneal dialysis